

학교폭력 피해 1570명…초등학교 최다

광주·전남 교육청 실태조사…쉬는 시간·언어 폭력 많아
전년보다 광주 0.1%P·전남 0.2%P 줄어…해마다 감소

학교폭력 피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만 1500여명의 학생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광주·전남 모두 초등학교내 학교폭력 피해가 가장 많았고 쉬는 시간, 통근생의 언어폭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교육청은 일단,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과 어깨동무학교 등이 학교폭력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인성교육 및 배려 중심 학교 문화와 공감·소통 능력을 키워주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교 2학년 학생 12만882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참여 학생 중 802명(0.6%)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남도교육청도 같은 기간 13만7289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상의 0.6%인 768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는 2차 실태 조사 결과에 기준으로 보면 ▲2014년 광주 1552명·전남 1472명 ▲2015년 광주 1015명·전남 954명 ▲2016년 광주 802명·전남 768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

세다. 교육부와 광주·전남 교육청 등은 온라인을 통해 매년 3~4월(1차)과 9~10월(2차)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응답자는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440명(1.0%), 중학교 216명(0.5%), 고등학교 144명(0.4%) 등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 초·중은 각각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교는 0.2%포인트 줄었다.

전남에서도 초등학교가 483명(1.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65명(0.3%), 고등학교 119명(0.3%)이었다.

전남지역도 전년도 2차 조사 때에 견줘 초등학교에서는 0.2%포인트, 중학교 0.1%포인트씩 감소했다. 고등학교는 피해를 본 학생 비율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은 언어폭력이었다. 광주에서는 566명(70.6%), 전남은 578명(75.3%)이 언어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집단따돌림도 광주 299명(37.3%), 전남 264명(34.4%)이 응답했다. 신체폭행(광주 200명·전남 237명), 사이버괴롭힘(광주 201명·전남 143명), 스토킹(광주 185명·전남 176명) 등도 여전했다.

학교폭력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시간은 쉬는 시간(광주 42.1%·전남 44.5%), 학교 이후(광주 14.3%·전남 12.2%), 점심시간(광주 9.2%·전남 7.4%)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광주 34.2%·전남 58.1%)이나 복도(광주 15.0%·전남 28.5%), 사이버 공간(광주 14.2%·전남 8.3%) 등이었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이 광주 74.2%, 전남 73.7%로 가장 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 교육감 누리과정 특별회계 반발

“교육청 압박 합법화 수단” 유감 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은 지난 4년여간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에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태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

안을 도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 누리과정 사업 추진 책임의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 ▲ 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재정지원금 소관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 ▲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을 늘려 교육감에게 의무편성 집행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한 것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앞으로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제철 만난 김장용 새우 동백하

6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포구에서 어민들이 칠산바다에서 잡아올린 동백하(겨울에 잡은 새우)를 분류하고 있다. 낙월포구는 새우잡이 어선인 ‘명탕구리배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곳으로 들어온 동백하는 신안수협에서 위탁판매 된다.

6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포구에서 어민들이 칠산바다에서 잡아올린 동백하(겨울에 잡은 새우)를 분류하고 있다. 낙월포구는 새우잡이 어선인 ‘명탕구리배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곳으로 들어온 동백하는 신안수협에서 위탁판매 된다.

6일 영광군 낙월면 낙월도 포구에서 어민들이 칠산바다에서 잡아올린 동백하(겨울에 잡은 새우)를 분류하고 있다. 낙월포구는 새우잡이 어선인 ‘명탕구리배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곳으로 들어온 동백하는 신안수협에서 위탁판매 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8
해질 17:20
일출 12:45
일몰 --:--

감기 조심하세요

구름이 많고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11	보름	구름많음	-4/11
목포	구름많음	0/11	순천	구름많음	-1/12
여수	구름많음	2/11	영광	구름많음	-2/10
나주	구름많음	-4/11	진도	구름많음	-2/10
완도	구름많음	0/11	전주	비온뒤 맑음	-2/9
구례	구름많음	-5/10	군산	비온뒤 맑음	-1/10
강진	구름많음	-3/11	남원	차차흐려져	-5/8
해남	구름많음	-4/11	속산도	구름많음	4/10
장성	구름많음	-4/1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5	서~북서	0.5~1.5
	면바다	남서~서	1.0~2.0	서~북서	1.0~2.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1.0	서~북서	0.5~1.0
	면바다(동)	서~북서	1.0~1.5	서~북서	1.0~1.5
	면바다(서)	서~북서	1.0~2.0	서~북서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06 12:13 07:43 21:04	06:59 19:35 01:51 14:26
여수		

◇주간 날씨

8(목)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0/10	3/7	-1/7	-2/7	-2/9	1/6	-2/6

◇생활지수

	높음
	매우높음
	관심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19일부터 운행

광주시는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가 오는 19일부터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두 역간 셔틀열차를 수서발 SRT가 개통되는 오는 9일부터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 장기 파업에 따른 기관사 수급의 어려움과 시비 부담의 최

소화를 위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시 의회의 예산 확정시기 등을 고려해 개통 시기를 19일로 연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레일과 추가 협의를 통해 시비 부담 최소화과 셔틀열차 운행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현관 우유 투입구 손만 넣어도 주거침입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다. 당시 집에 있어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돼 20년간량 친분을 맺었으나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씨가 이사를 해 연락을 끊자 A씨는 주변을 수소문해 B씨의 집을 찾아가던 것이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거주자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등도 처벌받을 수 있다.

범조계 관계자는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은 일련의 행위가 B씨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